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경우 노재보험 급부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분은?

- 감염 경로가 업무상 사유인 것이 명백한 경우
-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감염 리스크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감염된 개연성이 높은 경우
 - ※(예 1) 복수의 확진자가 확인된 노동 환경에서의 업무
 - ※(예 2) 고객 등과의 접대나 접촉의 기회가 많은 노동 환경에서의 업무
- 의사·간호사나 개호 업무 종사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감염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상
- 증상이 지속되어(회복 후 후유증) 요양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보험 급부의 대상

노재보험의 종류

업무에서 기인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노동자나 그 유족은 정규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보험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급부는 노동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유 등으로 인해 청구서에 회사의 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기준감독서와 상담해 주십시오.

요양 보상 급부

- ① 노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으면, 원칙적으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부득이 하게 노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고, 추후 노재보험 청구를 하면 지불한 비용의 전액이 지급됩니다.

휴업 보상 급부

요양을 위한 휴업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부일 : 휴업 4일째부터
- 급부액 : 휴업 1 일당 급부 기초 일당금액의 80%(특별 지급금액 20%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급부 기초 일당금액'은 발증일 직전 3개월분의 임금을 역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유족 보상 급부

업무에서 기인하여 감염되었기 때문에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은 유족 보상 연금, 유족 보상 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는 가까운 노동국·노동기준감독서 ▶



후생노동성·도도부현 노동국·노동기준감독서



(2021.12)